

기획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3차회의

일시: 2012년 7월 24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가 지난날 24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대회의실에서 올해 세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대석·경훈·노미향·안용덕·윤영현·이묘숙·임선숙·조미옥·천성권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2차회의 이후 광주일보 지면 변화 및 제작에 대해 평가와 조언하는 시간을 보냈다.

광주 유통시장 롯데 독점 심각... 대기업 횡포 더 알려야

강대석 (전 전남공무원교육원 원장)



기획시리즈 정보 유용  
깊이도 함께 고려해 달라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얼마 남지 않는 대선  
지역위한 공약 개발 시도

안용덕 (조선대 체육대 교수)



지역출신 국가대표선수 등  
런던올림픽 상세한 기사 만족

임선숙 (변호사)



용어 설명 좀더 자세히  
'생명농업' 내용 보장 필요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중소기업 힘든 입장 적극 개진  
사회적 기업 발전 도와야

▲강대석=폭염과 휴가철이 겹쳤는데도 불구, 위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지면을 살펴볼 때마다 광주일보는 독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수용하는 점이 보인다.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깊은 조언 부탁드린다.

▲경훈=지난 7월20일자 1면 '광주는 롯데왕국'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대형마트나 SSM 등 지역민들이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중인 데 사회공헌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 실제로 대형마트를 가보면 광주나 이 지역 제품을 찾기 힘들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광주일보에서 지역 생산품이 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더 세심한 기사를 내보내 대기업의 횡포를 더 널리 알려야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론에서 먼저 광주·전남지역을 위한 큰 공약 개발해서 이슈화 시도해야한다. 참여정부 때 '문화수도'라는 공약이 나와 현재 문화전당을 짓고 있고,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형공약을 만들고, 축구를 시민사회와 발맞춰 나가면 후보들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안용덕=제2차 독자위원회에서 체육관련 분야 지면할에 말씀드렸다. 프로야구에 편중돼 있고 학교·생활체육 관련 기사 거의 없다고. 그런데 최근 스포츠 지면은 눈에 띄게 구성이 달라졌다. 특히 6월 1일자 15면 '소년체전 결산' 기사는 지역 학교체육 성과를 자세히 알려 많은 체육인에게 현실성 있는 기사로 다가왔다.

지역 출신 국가대표가 많아 올림픽관련 다양한 기사도 지면을 장식하길 바랐는데, 매일 올림픽과 관련해 지면을 할애하고, 지역출신 선수관련 기사가 자세히 나와 독자로서 기뻐했다. 10월에 아마추어 행사로는 가장 큰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린다. 지역에서 체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사기 올려줄 수 있는 기획기사 등을 발굴하는 등 지역 체육계에 더 큰 도움 부탁드린다.

▲임선숙=항상 하고싶은 말이 '친절한 광주일보'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 나오면 용어 설명해 주는 것,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다. 물론 기획기사 등에서는 자세히 용어 설명이 들 나올때도 있지만 일반 기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예를들어 'DTI 규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있었던 국회의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도 단순히 사실 보도에 그칠 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체포동의안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독자가 실사 알고 있었더라도 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시리즈를 즐겨본다. 그런데 기획인 만큼 내용을 보장했으면 한다. 지난 7월3일자 13면 '표고 버섯' 기사의 경우 수출이나 성과 등은 자세히 기술된 반면, 실제 여성독자들이 환영할만한 표고버섯 활용법이나 흑화, 백화 등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은 빠져있다. 친절한 구성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해 달라.

▲윤영현=지난 7월3일자 1면과 3면 '평등산단 외국인단지 임대료 폭탄' 기사를 보면 기업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을 잘 전달했다. 최근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이 기사의 여처럼 기업의 힘든 입장을 잘 개진했으면 한다.

광주에서 육성중인 사회적기업만 90여개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은 정부 보조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 활발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책무에 맞는 공익적 가치

를 실현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또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지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공익가치를 위한 사회적기업들이 꾸준히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묘숙=여성세계박람회와 관련해 독자로서 정말 도움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9월 개막할 광주비엔날레 관련 기사도 꾸준히 나와서 좋다. 특히 기획시리즈로 광주비엔날레의 세계적 위상이나 콘텐츠를 깊이 있게 활자화한 것도 광주일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난 7월13일자 9면 '광주폴리' 기사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폴리의 현실을 잘 짚은 기사라고 본다.

지난 5월31일자 7면 '광주 쓰레기봉투값 너무 비싸다' 기사는 주부들이 민감해 할 내용을 적절히 취재해서 여성독자에게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었다. 지난 6월15일자 17면 '넝쿨째 굴러온 반값,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기사를 보면서 독자 스스로 소비패턴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평소 광주일보는 남성중심적 기사로 주부나 소비자에게 불친절한 면이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다소 나아지는 것 같다.

▲조미옥=최근의 광주일보 1면을 살펴보면 편집과 기사 배치, 하단 광고까지 구성이 맞아떨어진 것을 느꼈다.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 하지만 다른 면의 사진배치는 간혹 적절하지 못했다. 사진과 기사의 배치가 다소 어색해 학생들을 데리고 NIE 교육을 할 때 일관성이 없음을 느꼈다. 교사로서 18면 'People&Life'를 볼 때 아쉬움을 느꼈다. 예를 들어 최근 어느 기관에서 결혼가정 아이들과 결혼식을 가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면에 결혼가정 아동 얼굴이 나온 현상 사진이 고스란히 게재됐다. 과연 그 아이들이 결혼가정 제목을 걸고 얼굴이 공개됐을 때 환영할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다.

광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던 '외규장각 의궤 전시'가 얼마 전 끝났다. 박물관이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 무려 11만명이 관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광주일보를 보니 지난 4월22일 전시가 개막한다는 기사 이후 단 한건의 후속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무심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민의 수준높은 문화의식이 드러난 전시였는데 어렵다. 매일 독자투고란에 1건씩 투고가 실린다. 분명 투고로만 그칠 게 아니라 기사로 연결지을만한 내용도 보이는데 반영한 기사는 없다. 참고해 달라.

▲천성권=지난 회의 당시 학교폭력 관련, '릴레이식' 문제 제기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지면에 반영돼 일정부분 효과 있었다. 최근 주목 관련 내용도 시류에 따라 잘 할애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출근길 들은 뉴스에서 지자체 부채가 50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럽경제위기로 스페인은 부도 상황까지 직면했고, 국가 파산 소식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예산낭비를 집중 조명한 기사들은 독자들이 꼭 참고해야 할 내용이었다. 언론이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만큼 기사 게재에 그치지 보다는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도 해야한다.

▲노미향=지난 6월4일자 1면 '사할 통행차 관할료 징수는 불법' 기사 보면 불법 관료에 대한 사실 전달만 됐을 뿐 이후에 관광객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취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 지난 7월 3일자 6면 '문예회관 너무 낡았다' 기사는 굉장히 동감하는 기사였다. 광주는 문화수도를 표방한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대안 제시까지 나와야 한다. 지난 7월19일자 6면 '인권도시 광주 글씨올시다'는 장애인 시설 관련해 용어 설명도 좋았고, 기사 내용도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쓰레기봉투값·반값 가게 등  
여성독자 고려한 기사 좋았다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11만명 관람 외규장각 의궤전  
개막 후 후속기사 없어 아쉬움

천성권 (광주대 학생지원처장)



지자체 예산낭비 집중 조명  
독자들에 꼭 필요했던 내용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문예회관 너무 낡았다' 공감  
보도 넘어 대안제시 나와야

알았다. 사실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현상은 전국적이다. 언론에 부탁을 하자면 '그런 반대가 있어봤자 들어설 시설은 필연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사가 나왔으면 한다. ▲강대석=신문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특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크다. 광주일보는 매일 다양한 주제의 기획시리즈로 적절한 내용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기획을 꾸준히 게재하는 데 있어 깊이도 함께 고려해 달라. 가끔 지면 채우기식 기사도 보인다.

/정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p>도산동(교회) 대지 72㎡, 건물 786㎡ 감평가 995천 최저가 598천</p>	<p>순천조계 (상가, 주차빌딩) 대지 136㎡, 건물 235847㎡ 감평가 4391천 최저가 1594천</p>	<p>영양삼호 (근린시설) 대지 77㎡, 건물 152㎡ 감평가 91천 최저가 4억천</p>	<p>월곡동(집집 빌스) 대지 570㎡, 건물 24742㎡ 감평가 7698천 최저가 2795천</p>	<p>치평동(일일음식점) 대지 89㎡, 건물 3568㎡ 감평가 1199천 최저가 6억천</p>	<p>화정동(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평가 4195천 최저가 2192천</p>	<p>전주우이동(나이트) 대지 794㎡, 건물 23988㎡ 감평가 4794천 최저가 1994천</p>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p>▶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평가 10억 ▶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p>	<p>▶ 광주 쌍인동(유형시설) ▶ 대지 1520평 ▶ 건물 944평 ▶ 감평가 8997천 ▶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p>	<p>▶ 담양읍(공정)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감평가 7억 1600만 ▶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p>
<p>▶ 용동동(하미스포렉스)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평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사실비별도)</p>	<p>▶ 울산동(주거지) ▶ 대지 2455평 ▶ 건물 445평 ▶ 감평가 18억2천 ▶ 매매가 8억 (협의후결정)</p>	<p>▶ 전북완주 공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평가 135억 ▶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p>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삭이사/상가 김구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1413㎡(오피스텔 48세대건축가능)  
㎡당 546,000원

아파트/빌라 박미리빌딩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원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입)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다구주택(원룸, 투룸, 소규모)

(토지구입)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농지 + 용도: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렴한입자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922천 매도가 895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임료 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농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농지 2397㎡(725평) 평당 965만원
- 공평 청고용도로 적합
- 비포장 자연농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평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가능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658949.co.kr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면적 : 460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1600만원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대 지 : 300평  
-최고 매출  
-매매가 상담후 결정

**침단잔단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투자자 모집니다  
1억 - 5억 투자자 모심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알은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남에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주)원동형 신보정업, 대인동 소방서건물내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가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원영!  
(매수자 다수 대가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전업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국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에 600평(31억)  
임대보증금 95억 월임 500만원

**토지(매매)**  
■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석당영양동)  
■ (상무지구) 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가리코너)  
■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형가능)  
■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할) (회사사용,오피스빌딩 적합)  
■ (동림지구) 준주거지 용암-하남 간대교변 4,470㎡(약 1,352평) - 평당 330만 (예산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우편이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영 1층